

CULTURE 유주현의 비욘드 스테이지 '이프덴' 주연 정선아

유주현 기자  
yjjo0@joongang.co.kr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실현하는 한에 있어서만 실존한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와 선택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끊임 없이 만들어 간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여전히 선택이다. 내가 어찌지 못하는 남의 결정과 환경에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선택의 결과가 좋건 나쁘건,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

이런 난해한 실존주의 철학을 100% 공감할 수 있는 무대가 나왔다. 뮤지컬 ‘이프덴’ 얘기다. 사실 주말에 공연을 예약해 놓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피곤하니 그냥 쉬 것인가, 바지런을 떨 것인가. 휴식을 포기한 대신 깨달음을 얻었다. 판타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겼던 뮤지컬이 인생을 사유하게 할 줄은 몰랐다.

160분 중 주연 분량 150분, 화장실도 못가

그날 만약 편안한 휴식을 택했다면 배우 정선아를 굳이 만나지 않았을 터. ‘이프덴’의 이혼녀 엘리자베스를 연기하는 정선아는 ‘위키드’의 글린다, ‘아이다’의 암네리스 같은 공주 역할로 각인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마치 콜로라두라 소프라노가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변신한 느낌이었을까. 그리고 보니 2002년 18세 나이로 뮤지컬 ‘렌트’ 주역을 맡으며 혜성같이 등장한 천재소녀가 어느덧 데뷔 20주년을 넘겼고, 지난해 아이도 낳았다.

그런데 얼마가 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복귀를 택했다. ‘이프덴’을 놓치고 싶지 않았단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임신 때 77kg까지 찼는데 빨리 무대에 서겠다는 목표로 살을 뺐죠. 출산하면 목소리도 변한다길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임신 중에도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제게 너무 찰떡같은 이 작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몸관리도 많이 했어요. 걱정도 있었지만 감히 완벽한 복귀였다고 생각해요.”

‘찰떡같다’는 표현은 그가 연극적인 무대를 갈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지붕 뚫는 고음’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연기에 대한 욕심도 컸기에, 두 편의 드라마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프덴’이야말로 “내 꺼다” 싶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무대다. 러닝타임 160분 중 주인공 분량이 150분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토크 튀는 역할을 많이 했고, 제게 원하는 게 고음 뽐내는 아리아란 것도 알아요. 하지만 배우로서 대사 위주의 드라마적인 작품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연기적으로 끌고 가는 대사를 극강의 고음으로 노래하는 거라 두 토끼를 다 잡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90% 이상 분량은 처음이고, 이후에도 이런 뮤지컬이 있을까 싶어요. 보통 화장실 갈 시간은 있거든요. 잠깐 앉아서 쉬면서 물도 마시고 소곤소곤 얘기도 할 수 있는데, 화장실은 커녕 아예 웃도 무대 옆에서 같이 있어야 해요. 분량이 워낙 많아서 인터미션에도 대사와 노래를 계속 숙지해야 하고요.”

배우도 바쁘지만, 관객도 밤심할 수 없다. 이혼 후 새 삶을 시작하는 엘리자베스가 순간의 선택에 따라 ‘리즈’와 ‘베스’의 삶으로 달라지는데, 두가지 삶이 수직 차례 교차되며 드라마가 전개되기에 관객도 바짝 긴장해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다른 작품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보시잖아요. 캐릭터가 어떨고 둘의 관계가 그렇구나. 그런데 이 작품은 나의 시점으로 보게 되니 어느 한 순간 방관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눈을 땀 새가 없다는 반응이 많고요. 배우로서 이런 현실적인 뮤지컬이 많아졌으면 해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메시지를

# “극강 고음 노래와 연기 두 토끼 다잡고 싶어요”



2002년 18살 나이에 뮤지컬 ‘렌트’로 데뷔한 정선아는 데뷔 20주년을 보내고 아이도 낳은 지금이 ‘인생 2막’의 시작이라고 했다. /박종근 기자

## 이혼녀 ‘엘리자베스’역 맡아

작품 욕심에 출산 5개월만에 복귀

임신 중에도 보컬 트레이닝 받아

“무대에서 더 많은 행복 이야기

선택 후회 않고 앞으로 달려갈 것”



뮤지컬 ‘이프덴’은 주인공이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며 두가지 삶의 모습을 씬없이 오간다. <사진 쇼노트>

드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공연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3 때 처음 본 오디션에서 에이즈에 걸린 스트리퍼 역할을 단박에 따낼 정도로 어떤 역할이든 쉽게 소화하는 정선아는 ‘본 투 비 뮤지컬 배우’로 알려졌다. 그런데 타고난 게 전부는 아니다. 중2 때 ‘브로드웨이 42번가’에 반해 뮤지컬 배우의 꿈을 품은 이후, 꿈을 향해 쉬없이 직진했을 뿐이다. 데뷔 무대에서도 전혀 떨지 않을 만큼 ‘준비된 스타’였다.

“안 떨었어요. 잘하는 걸 보여주게 되니 그저 좋았죠.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으니 떨릴 이유가 없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미친 듯이 뮤지컬에 파고들었으니까요. 그땐 뮤지컬 배우란 직업을 아무도 몰랐어요. 정보도 없던 시절 방배동에 딱 하나 있는 배우 아카데미에 직접 찾아가서 등록하고, 매일 저녁 연습하러 다녔죠. 엄마의 지지도 컸어요. 뮤지컬을 처음 보여준 분도 엄마였고, 배우가 되겠다니 적극 알아봐 주셨죠. 윤석화 선생님이 ‘토요일 밤의 열기’를 처음 들어왔을 때도 엄마가 전화로 걸어서 고등학교생은 원서도 못 내냐고 묻던 기억이 나네요. (웃음)”

사실 뮤지컬 판에서 무명의 신인이 데뷔부터 주역을 꿰차는 일은 거의 없다. 티켓을 파는 건 실력 이 아니라 인지도라서다. “어려서부터 준비가 돼 있

어서 기회를 잡는 것 같아요. 오디션에서 10대가 세시댄스를 주니 놀랍지만, 30살이 춘다면 당연히 짱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모험하는 제작사가 없어요. 혜성같이 등장하는 신인이 잘 없는 게, 유명한 누군가가 나온다고 해야 티켓이 팔리니까요. 신시컴퍼니 박명성 대표님께 항상 감사드리게 이유죠. 아무 것도 아닌 저를 예리한 눈으로 발견하시고 주연으로 세우는 모험을 해 주셨잖아요.”

‘이프덴’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엘리자베스가 공원에서 시위 행렬에 가담할 것인가, 버스킹 공연을 볼 것인가의 사소한 선택에 따라 ‘리즈’와 ‘베스’라는 매우 다른 삶의 경로가 펼쳐진다. 누구에게나 물어봐 보면 ‘그때 만일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이라는 순간이 있을 터. 정선아에게도 마찬가지다. “만약 제가 렌트 오디션에 나이가 안 된다고 자신 없어 했다가, 가 보지도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좀 늦게 배우가 됐어도 실력이 있으니 잘 풀렸겠지만, 혜성같이 등장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승승장구는 못했을지 몰라요.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갔기에 최선의 나를 보여준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내가 그때 왜 그걸 안 했지’라는 생각이 잘 안 한다고 했다. 괜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가 선택한 작품이 다 흥행하진 않았지만, 쪽 돌아보면 다 행복했던 지점이 있어요. 흥행 대신 사랑을 얻었달지.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정선아를 만든 것이고, 또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밑거름이 되겠죠. ‘이프덴’의 메시지 그거예요. 옛날 TV에서 보던 ‘이후자의 인생극장’과는 달리, 그 어떤 선택에도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그저 나로부터 시작되는 순간순간의 선택과 사건이 모여 나의 긴 인생이 되고, 책임도 나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 18세에 뮤지컬 ‘렌트’ 주역 준비된 스타

새침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정선아는 개그맨 뻘치게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이었다. 보석처럼 반짝 반짝 빛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든 질문에 열정적으로 답했고, 무한 긍정의 행복 에너지로 주변의 텐션까지 끌어올렸다. 스스로도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창 ‘천재’ 소리를 들던 시절엔 교만했고, 한때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었다.

“10년쯤 일을 하니 어릴 때 미친 듯 쫓아다니던 뮤지컬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진 것 같았어요. 이른 나이에 꿈을 이뤄 버리고 나니,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더라구요. 배부른 소리라 하겠지만, 어릴 때 교복 입고 연습실에 가서 새벽까지 열심히 하던 내가 꿈꾸던 미래가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달까요. 내 꿈이 고작 얼마의 돈이 되고, 페이를 더 받으려고 작품을 선택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발견한 건 ‘감사’라는 키워드였어요. 내가 이런 끼를 받았고, 이렇게 말짱하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게 모든 해결의 열쇠였어요. 그리고 보니 나를 도와주는 스태프에게도 감사한 줄 모르고 혼자 우쭐해 살았더군요.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행히 저는 그들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감사 표현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지나간 이야기에 흥미가 없어 보였다. “앞만 보고 달려가고 싶다”면서 자신의 대표작도 지금 하고 있는 ‘이프덴’이 되기를 바란다 했다. 지금의 그를 있게 한 ‘렌트’는 지나간 첫사랑이었을 뿐이다. “이프덴을 만나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결혼, 출산으로 인한 몸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여러 선택을 해야 했죠. 앞으로도 많은 갈림길이 있겠지만, 내 선택에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이프덴’의 메시지처럼, 잘못된 선택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무대에서도 행복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